

浮石寺의 立地選定背景과 配置變化特性에 관한 考察

陳 景 敦 · 李 岡 業

漢陽大學校 理工大學 建築學科

A Study on the Background of the Site Selec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Arrangement Change of Bu-Seok Temple

JIN, KYUNG DON · LEE, KANG UP

Dept of Architecture, Han Yang Univ.

ABSTRACT

This paper aims to grasp the basal things of the architectural meaning of Bu-Seok Temple through the background of site selection and the analysis of arrangement change of it.

For this purpose, I try to examine the process of folk-belief adhesion of Buddhism and Feng-Shui as the choice factor of site when the temple was established, the spatial characters of the changing stage in arrangement.

These characters of Bu-seok temple have significance for the basic study on the site selection and the spatial analysis of a mountainous district Temple in Shilla.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佛敎가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로 傳敎와 修行을 위한 伽藍의 造營은 필수적이었다고 할수 있는데 佛敎의 伽藍은 그 創建目的에 따라 平地伽藍과 山地伽藍으로 나누어 진다고 볼수 있다. 佛敎傳入初

期の 平地伽藍과는 달리 佛敎의 敎理體系가 성숙되면서 修行을 위해 山地로 立地가 정해진 山地伽藍의 경우 立地하기 위한 地誌선정의 문제와 山地의 不規則한 지형을 극복하고 殿閣을 配置해야 하는 배치구성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수 있다. 現在의 伽藍分析은 立地選定이라는 점에 있어 대체적으로 創建당시의 建築觀과 風水로 해석되고 있고 伽藍配置에 있어서는 空間의 해석과 관련

하여 기존 공간에 대한 理論的 정리 및 주관적 해석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山地伽藍의 初期形態이며 상당히 여러分野에서 연구되어온 浮石寺를 통하여 立地選定과 配置分析의 이론적 해석 이전단계인 立地선정에 作用된 要因과 浮石寺의 伽藍配置의 변화를 中心으로 당시의 造營性格을 考察하고자 한다. 이러한 分析 태도의 이유로는 대상 寺刹과 관련된 諸 논의를 보완, 보충한다는 점과 대상사찰의 建築的 分析을 위한 기초적 사실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데 있다.

2. 研究의 方法

浮石寺에 대한 지금까지의 研究를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殿閣을 中心으로한 양식적 변화와, 美術的 측면에서 表現技術 및 特徵의 서술, 그리고 宗教現象이나 建築的 理論을 中心으로한 空間分析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와같은 分析은 浮石寺의 空間的 特性이나 그 形態를 파악키 위한 기초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보다 배경적인 측면 즉, 立地選定の 要因라든가 殿閣의 原形과 變形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또 다른 그 건물이 지니는 건축적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지선정에 作用한 要因을 창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기초로 民間信仰을 흡수하려했던 佛敎와 기존신앙과의 관계, 그리고 韓國建築이 가지는 기본原理라는 風水로 나누어 살펴 보았으며 浮石寺의 配置變化를 파악키 위하여 년대별 殿閣의 배치변화, 과거의 殿閣의 명칭 및 없어진 堂宇와 門등을 자료를 통하여 정리하였고 이 결과 浮石寺의 殿閣構成이 지니는 建築的 意味를 考察하였다.

II. 寺刹立地의 背景要因의 考察

1. 立地選定要因 검토

기존의 寺刹建築의 立地選定에 대한 分析의 대체

적 경향은 佛敎의 立地觀과 自然의 地理的 조건을 결부시키는 동시에 民間信仰이라는 기층 宗教文化와 佛敎와의 상호관계가 立地選定에 결정要因으로 반영되었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自然的 要因으로써의 地理的 조건과, 둘째는 思想的 要因으로써의 佛敎信仰을 포함한 民間信仰, 風水思想 등이 그것이다. 특히 사상적 요인으로써의 세가지 측면은 寺刹創建 당시 사회, 정치적 상황과 창건 승려의 佛敎的 성향을 덧붙여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山地寺刹이 광건되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앞의 두가지 사상적 요인 즉, 佛敎信仰과 民間信仰이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寺刹의 立地가 민간신앙과 습합하는 가운데 결정되는 것이 대체적인 입지선정과정의 흐름이라는 것은 初期 山地寺刹 創建時期的 共通의 현상이었다. 물론 이점은 自然을 보는 의식적인 관점에서 나온 韓國人의 땅에 대한 立地개념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¹⁾ 이러한 특징은 韓國古代佛敎史의 시대구분²⁾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外形的인 면에서의 세가지 시대구분이 모두 民間信仰과 佛敎信仰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

2. 佛敎의 民間信仰 습합과 立地

1) 民間信仰의 類型

韓國人의 宗教의식속에 자리하고 있는 本質的인 宗教觀을 民間信仰의 범주로 볼때³⁾ 당시 佛敎가 습합하려했던 民間信仰의 類型으로는, 모든것에 生命이 있다고 믿는 有生觀과, 山岳, 河川, 樹木, 岩石 등 자연에 대한 외경의 신앙이 발달하여 모든 物體에는 精靈이 잠재한다는 有靈觀, 그리고 不可視的, 不感的인 Anima나 神明 등 공포의 대상이기 보다는 일상의 실제적 요구에서 초월적인 힘에 의존하는 願力信仰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들은 有生觀→有靈觀→願力信仰으로 체계적으로 발달된 의식적인 종교현상이었다. 이러한 民間信仰의 類型은 그

註 1) 金容雲, 金用國, 東洋의 科學과 思想, 一地社 1984. p89.

땅에 대한 개념에 있어 단순히 자연공간이 아닌 정령(Anima)으로 가득차 있는 신화적인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신성개념과 자연물 특히 水, 山, 木, 岩에 대한 살아있는 대상으로써 신성시하려는 의식이 立地에 반영되어 왔다.

註 2) 柳東植, 民俗宗教와 韓國文化, 현대사상총서, 1984, pp. 198~203

① 佛敎傳來의 단계: 三國에 佛敎가 전입되어 기존신앙을 토대로 정착하는 시기

② 佛敎解釋의 단계: 三國統一을 전후하여 山地寺刹이 상당수 창건되는 시기

③ 佛敎土着化의 단계: 12C 이후 寺刹내부에 민간의 主神을 모시는 전각이 나타나는 시기

註 3) 흔히 原始宗教를 民間信仰 또는 土俗信仰으로 본다.

구체적 형태만 달라질뿐 과거, 고구려, 백제, 신라에 모두 남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天神, 地神信仰과 山神, 神仙思想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신앙형태는 민간신앙이라는 큰 범위의 명칭보다, 그 성격에 있어 道敎的이라는 말로 흔히 사용되었다. 따라서 三國에 공통적으로 퍼져 도교적인 면이 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三國중 道敎의 성격이 가장 강하였던 新羅의 경우 공식적인 道敎수입(738年) 이전에 中國의 道敎와는 무관한 자생적인 道敎의 기풍이 성행했음을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⁴⁾ 新羅에 널리 유행했던 仙風 및 神仙思想은 근본적으로 山岳숭배의 기반이 되는 山神信仰과 그 맥을 같이하는데 山은 하늘과 잇닿아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 정상은 天界와의 통로로서 상상되어 宗教的으로 神聖한 장소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新羅의 神仙思想과 仙風의 의식은 新羅四仙을 비롯한 많은 神仙說話를 만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신라 통일 전후기에 유행했던 花郎徒의 仙風의 분위기 라든가 山神 또는 神仙신앙에 대한 道敎的 思想은 그 근원을 韓國固有의 신앙체계에서 이해해야 하며, 神聖視되었던 名山地에 寺刹이 立地하는면과 관련해, 이 당시의 宗教의 분위기가 新羅社會의 생활방식이나 지배적 관념이었던 도교적 분위기였다 는 점에서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佛敎와 民間信仰 습합의 特徵

三國에 佛敎가 傳入되고 난뒤 宗教思想으로 定着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기존의 土着信仰을 토대로 民間에 정착하려는 것이었는데 三國中 가장 성공적으로 佛敎를 정착시킨 新羅의 경우 역시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한 예로 沙門의 墨胡子가 불교를 설명할때 불교가 기존 民間信仰에 神聖과 다름 없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과⁵⁾ 佛像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天神, 地神, 龍神의 개념에 대비시켜 설명하는⁶⁾ 등, 당시의 民間信仰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은 특징은 불교가 민간에 정착하기 위한 초기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거치는 과정으로써 이는 中國에서도 마찬가지였다.⁷⁾

이후 三國統一기를 전후한 新羅佛敎는 前期의 密敎의인 방편불교에만 머물지 않고 불교본연의 사상

체계를 형성해 나가게 되는데 신라 통일기에 華嚴思想을 기반으로 토착화하게 된다. 이때의 특징을 단적으로 말하면 佛敎가 신라사회에 주도적 思想으로 등장하게 되고, 修行을 위해 寺刹의 立地가 山地로 택해지면서 民間의 神聖地域 즉, 民間信仰의 터에 선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佛敎의 民間信仰 귀합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여기에는 佛敎의 自然觀이 神聖한 場所를 택해야 한다는 敎理的 측면도 있었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 思想的으로 高等한 論理를 갖고 있던 佛敎가 기존의 민간산앙을 흡수하여 佛敎로 대체하려는 의도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意圖를 실제로 옮기는 데에는 佛敎와 民間信仰 세력사이에 상당한 마찰과 갈등이 있었다고 예상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寺刹創建說話에서 보이는 毒龍의 예를 통해 形象化되고 있다. 창건설화등에 언급된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寺刹이 立地하려는데에는 반듯이 그전에 毒龍이 자리잡아있고 그 터 내놓기는 저항하다 창건승려들의 佛力 또는 神力에 의해 굴복되어 그 자리에 寺刹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毒龍이 갖는 의미는 佛敎에 반대하여 저항했던 세력들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데 당시 新羅의 社會, 宗教的 분위기를 볼때 앞에서 언급한 山岳의 神仙思想을 지니고 있던 道敎의 仙風세력이라 볼 수 있다.⁸⁾

新羅의 佛敎수용이전 부터 지배적인 신앙형태였던 仙風의 터는 당시 사람들에게 聖스러운 靈地로 인식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장소에 寺刹을 立地케 했다는 것은 당시 사상적으로 뿐아니라 세력에 있어서도 우위에 있던 佛敎가 기존 民間信仰의 神聖 개념을 대신하여 佛敎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했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民間信仰의 神聖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寺刹을 건립함으로써 양자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기존 민간신앙의 神聖개념을 대신하여 民間의 聖域에 寺刹을 立地시킴으로써 양자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佛敎를 보다 순조롭게 발전시키려 했던 의도로도 파악할 수 있다.⁹⁾

註 4) 國母神을 仙桃聖母라 하여 仙女로 숭배한 일, 花郎이전의 源가 敎敎의 제사를 주관했던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국가제사에 五岳神을 섬겨 제사한 점등 山神, 神仙사상의 仙風이 강하였다.

註 5) 三國遺事, 卷三興法編, 阿道基羅條

註 6) 三國遺事, 卷三第四, 塔像條

註 7) 黃秉國編著, 老藏思想和 中國의 佛敎, 文湖社 1987, pp. 143~145

註 8)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성대출판부, 1984, p131.

註 9) 金玉卿, 新羅淨土信仰의 考察, 동국대, 1982. 12. pp. 21~22

따라서 新羅의 三國統一기를 전후한 山地寺刹의 立地選定의 背景으로는 佛敎가 세력을 확장키 위한 수단으로 기존 民間信仰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주로 立地가 결정되었으며 이는 그 당시 보편적인 현상으로 作用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風水와 立地

韓國建築에 있어 立地를 해석하는 分析要因으로써 風水가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상당부분 그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風水의 응용년대라든가 대상건축에 적용되었다라는 구체적인 史的근거가 없다는 맹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風水의 적용 시기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新羅末 道說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 이전의 창건 寺刹에는 風水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몇가지 예를 통해서 道說이전인 三國時代에도 風水와 유사한 개념이 있어 이것이 건축에 반영되었다는 견해가 있으나¹⁰⁾ 그것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관한 이렇다할 결과는 없었다고 본다. 이점은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만 다만, 新羅統一을 전후하여, 入唐유학생을 통한 中國의 風水地理와 陰陽圖讖思想을 골자로한 風水地理說이 도입되었다는¹¹⁾ 視覺에 주목하여 風水에 대한 장황한 배경설명 보다는 신라 통일기의 入唐僧이었던 義湘을 통하여 風水와 立地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李能和의 「朝鮮道敎史」에서는 다음과 같은 매우 특이하면서도 중요한 義湘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다. “道家라 하는 것은 「海東傳道錄」에 義湘과 道仙이다 仙家부류에 속하므로…義湘과 道說은 세상에서 異僧이라. 義湘이 지은 「靑丘秘訣」과 道說의 「玉龍秘訣」은 風水說으로서 세상에 崇信된다”¹²⁾ 玉龍子 道說에 관한 風水思想과 서적은 사실과 같지만¹³⁾ 義湘에 관한한은 기존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내용인 것이다. 義湘에게서 仙家로서의 사상과 圖讖風水의 개념이 있어 그 저술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義湘당시에도 風水서적이 있어 실제 寺刹立地에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당시 新羅의 지배적인 宗教 분위기였던 神仙사상, 仙家사상이 義湘에게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前者의 측면에서 시각을 비약해보면 風水사상의 적용이 신라말 道說에서부터 적어도 義湘당시 까지 내려와야한다는 시기상의 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義湘 著라고하는 「靑丘秘訣」이 현재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과 가장 근본적으로 佛敎의 華嚴思想에 철두철미 했다는 義湘이 과연 그러한 서적을 저술하였겠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본래 秘記流라 하는 것이 후대에 와서 유명한 승려나 異人들의 이름을 빌어 그 서적의 신빙성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¹⁴⁾ 이점에 신증을 기하기 위해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더 살펴보고 판단해 보기로 한다.

道敎學에서는 義湘과 관련된 위의 사실을 定說化하고 있는데 李能和는 義湘의 역할을 계속 다음과 같이 부각시키고 있다.

“唐나라 文宗 開城年間에 新羅의 崔承祐, 金可紀, 僧 慈惠가 唐으로 유학하였는데 함께 終南山에서 天師 申元之와 사귀더니…”¹⁵⁾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慈惠」라는 僧의 존재와 정체에 관한 내용인데, 「海東傳道錄」의 卒敎復이 附記한 내용에 의하면, “慈惠 郎 義湘大師也”라 하여 慈惠가 義湘임을 밝히고 있으며, 李晔光의 「芝峰類說」¹⁶⁾에서도 慈惠와 義湘을 同一人物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李圭景의 「五州衍文長茂散稿」에서,

“新羅異釋 元曉·義湘, 始創圖讖秘記… 義湘 慈惠尊者¹⁷⁾라 하여 義湘을 慈惠로 설명하고 있으며 義湘을 元曉와 함께 圖讖秘記의 창시자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義湘이 지었다는 風水書 「靑丘秘訣」에 관한 사항은 오늘날 유행하는 「鄭監錄」의 내용가운데 <鑑訣>, <鑑寅錄>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訣名: 新曉子師義湘 祖師秘傳, 假託著作: 義湘”이라 하여 그점을 잘 알려주고 있다. 또한, 아마 李能和도 참조 하였으리라고 여겨지는 李圭景의 「五州衍文長茂散稿」의 <元曉·義湘辨證說>에서도 다음과 같이 저자와 서명을 밝

註 10) 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民音社, p. 13 金容雲, 金用國 Op. cit, p. 90

朴時翼, 風水地理說 發生背景에 관한 研究, 고려대, 1987. pp. 240~242

註 11) 李鍾恒, 風水地理說의 成行과 그것이 우리민족에 미친 惡影響에 관한 연구, 경북대논문집, 5집, 1962. pp. 483~504.

註 12) 李能和, 朝鮮道敎史, 李鍾段 譯注, 普成文化社, 1986. p. 356

註 13) 崔昌祚, Op. cit, p. 46

註 14) 梁銀容, 元曉大師 研究論叢, 국토통일원, 1987 11. p. 284

註 15) 李能和, Op. cit, p. 438

註 16) 李晔光, 芝峰類說, 卷 18, 外道部

註 17) 李圭景, 五州衍文長茂散稿, 非韓圖讖辨證說.

하고 있다.

“我東輿書有青丘秘訣，以爲新羅元曉弟子，義湘大師 慈惠尊者所著”¹⁸⁾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통해 본다면 義湘이 唐유학時 佛敎이외에 道敎와 상관했으며 그로인하여 圖讖風水說을 전수받았고 이후 「青丘秘訣」이라는 風水書를 지어 남기게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앞에서 인용한 자료들의 論理 전개상 몇가지 문제점¹⁹⁾은 있으나 風水에 관한 義湘의 행적이 사실과 같다면 적어도 義湘이 창건한 寺刹立地에 風水개념이 적용되었다라는 사실과 義湘 당시내의 寺刹창건에 風水가 반영되었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 眞僞는 현재 확실치 않아 분명히 단정할 수는 없어도 義湘이 유학했던 당시 唐의 宗敎의 상황이 라든가²⁰⁾ 義湘에게서 보이는 神祕한 術법적내용, 義湘이 유학한 唐의 至相寺와 風水를 傳受받은 곳이 모두 동일한 終南山 이었다라는 사실은 간접적 이지만 가능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III. 浮石寺의 立地選定背景

1. 地理的 背景

浮石寺 創建에 관한 史料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비교적 창건연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三國史記」에 의하면 新羅統一기인 文武王 16년(676年) 2월임을 알려주고 있다.²¹⁾

浮石寺의 地理的 背景중 가장 독특한 것은 당시 山岳을 神聖視하여 山岳神에 제사를 드리는 新羅의 三山五岳중 北岳인 太白山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太白山에서 西南쪽으로 상당히 떨어져있는 現 榮豐郡의 鳳凰山에 위치하고 있으며 寺名앞에 「太白山 浮石寺」라 하는 것은 현재의 鳳凰山이 太白山脈의 한 줄기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新羅의 山岳숭배행태가 三國의 통일기에 성립된 것은 단순히 山岳숭배라기 보다는 그 배후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라통일기에 새로 편입되는 政治세력을 의미하거나 기존부족의 상징적 존재로서 신라의 國家的 제사의 대상이 된것이라 보고 있다.²²⁾ 즉 國防의 의미 및 王權의 강화라는 政治的 性格을 지닌 地理的 背景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義湘의 浮石寺창건이 太白山으로 상징된 세력과의 귀합이라든지 軍事的 목적을 위한 護國信仰의 발로였다는 점은 시대적 상황으로 볼때 타당성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浮石寺의 立地배경을 설명하기엔 지나치게 단순화 해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대한 몇가지 反論은²³⁾ 당시의 宗敎의 상황으로 立地가 결정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佛敎의 民間信仰 습합

浮石寺의 立地選定에 영향을 미친 要因을 佛敎의 습합단계에서 보면 그 주요 배경이 되었던 佛敎信仰과 民間信仰의 관계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浮石寺 創建以前 義湘이 지었던 몇개의 寺刹의 立地選定과정을 보면 거의 모두가 기존의 民間信仰의 터에 立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記錄상 義湘이 처음 세웠다는 洛山寺는 民俗學에서 이르는 民間의 生生力 상징인 「禳穴」으로써 당시 미간에 널리 퍼졌던 기도터였으며²⁴⁾ 신라의 國仙들의 경유지로서 道敎的 仙風聖地였다.²⁵⁾ 또한 現存하지는 않으나 金剛山에 지었다는 摩訶衍은 당시 蓬來山이라하여 道敎의 神仙사상이 팽배한 곳이었는 데 意識的으로 佛敎式의 명칭인 金剛山으로 불리워졌던 곳에 立地하고 있었으며, 佛影寺의 경우는 이미 그자리에 毒龍으로 상징된 民間信仰의 세력이 자리하고 있던 곳이었다.²⁶⁾ 따라서 浮石寺 創建以前 義湘이 창건한 寺刹은 모두 당시 기존의 民間信仰

註 18) 元曉와 관계된 義湘의 내용은 여기서 略하기로 한다. 참고서적은, 梁銀容, Op. cit.

註 19)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略한다. 참고서적은 다음과 같다.

金洛必, 『海東傳道錄』에 나타난 道敎思想, 道敎와 韓國思想, 汎洋社, 1987.

註 20) 卞圭龍, <道德經>과 梵五譯의 諸問題, 道敎와 韓國思想, 汎洋社, 1987.

註 21) 三國史記, 卷七 新羅本記, 文武王條.

註 22) 李基白, 新羅政治 社會史 研究, 一潮閣, 1984. p. 201.

註 23) 金相鉉, 新羅中代 專制王權과 華嚴宗, 연세대 <東方學誌> 44, pp. 74~75.

① 宋高僧傳에는 浮石寺가 王室과 관계없이 창건되었으며 신라의 통일과는 무관한 상태였다고 알려준다. ② 浮石寺가 太白山에 세워진 것은 군사적 목적보다는 普福之地로써 수행에 적합한 곳이었다. ③ 浮石寺는 창건이전에 고유의 전통적인 신앙터였다.

註 24)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一潮閣, pp. 223~224, p. 243.

註 25) 崔珍源, Op. cit, p. 124.

註 26) 朝鮮寺刹史料(下), <天竺山 佛影寺記> p. 38

의 터에 立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浮石寺에도 그러한 증거는 매우 명확히 찾아볼 수 있는데 浮石寺의 세가지 奇異한 自然物 즉, 「善妙井」, 「浮石」, 「石龍」을 통해서 알 수 있다. 「善妙井」은 옛부터 祈雨祭를 지내던 곳으로 民間에 있어 神聖觀 되던 장소였으며, 창건설화에서 善妙井에 9龍이 있어 義湘의 浮石寺창건을 방해한다는 점, 「宋高僧傳」에서 浮石寺의 자리에 이미 權宗異部, 즉 고유의 전통신앙을 따르던 무리가 자리하고 있어 義湘이 이들을 물리치고 창건했다는 점, 또한 현재 浮石寺 無量壽殿內 아미타불상 밑에 머리를 두고 있는 「石龍」과 金堂옆에 「浮石」이 모두 고대인들에게 神靈스러운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점²⁷⁾ 등은 모두 浮石寺의 立地가 기존 民間信仰과 깊이 관계되고 있다는 점은 명백히 해준다. 浮石寺의 이름역시 金堂뒤 「浮石」 바위에서 나온 것이고, 浮石寺가 고려시대에는 善達寺라 불리운 것이 善達이라는 이름이 “선돌”의 음역으로 浮石의 鄉音이라는²⁸⁾ 사실에 있다는 점은 더욱 그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浮石寺가 갖는 이러한 특징은 佛敎가 民間信仰을 흡수하려 했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때 그 의도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浮石寺가 지나는 이런 특성은 서기 678年 義湘의 梵魚寺 창건에도 나타나며 義湘이 창건하지는 않았으나 法住寺의 立地와 慈藏의 通度寺, 淨庵寺, 그리고 義湘의 제자였던 順應, 利貞의 海印寺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 6~7C 이후의 山地寺刹의 立地는 民間의 聖地와 깊이 관련되고 있어 이는 당시 寺刹들의 立地選定 背景要因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風水地理

앞에서 언급한 義湘과 風水와의 관계는, 義湘의 著作이라하는 「靑丘秘訣」이 현재 남아있지 않고, 그 著作의 진위역시 확실치 못하여 명확하게 논증할 수는 없어도 後世사람들의 義湘을 보았던 그와같은 視覺에서 意義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²⁹⁾ 그러나 義湘이 행한 행적이나 그가 이야기했던 것을 모아 보면 당시 그에게 風水개념과 유사한 意識이 있었

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義湘이 佛影寺를 창건하는 과정에서 立地를 선택하기 위한 행적을 보면, 山에 올라가 地形을 살피고 方位와 景觀을 보고 立地할 장소를 택하였음을³⁰⁾ 알 수 있는데 이러한 立地 선택방법은 風水에서 대지를 택하는 방법인 方位와 吉局, 凶局을 따지는 地形 및 景觀의 분석 방법과 매우 유사한 형태임을 볼 수 있다.

그는 金剛山과 관련하여 “五臺山은 有行이기에 一定한 수의 사람이 出世할 땅이지만 金剛山은 無行이기에 무수한 사람이 出世할 땅이다.”³¹⁾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담무갈보살의 입을 빌려 오대산에 비해 금강산이 더 훌륭한 聖地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는 山과 地에 대한 性格이 사람의 장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 즉 圖讖風水의 개념이 義湘에게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 밖에 義湘이 浮石寺 창건시 中國의 僧 法藏에게 보낸 편지가운데 스승이 있던 終南山과 浮石寺의 太白山이 다른바없이 華嚴을 천양하기에 좋은 山이라는 점과 「宗高僧傳」의 “華嚴은 善福의 땅이 아니면 흥하지 못한다”는 것과 浮石寺가 立地할 곳이 “山이 수려하니 법문을 굴릴만한 곳이다”는 말 모두가 寺刹의 立地와 自然의 吉地를 결부시키는 風水의 立地개념과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義湘의 이와같은 사상적 배경에는 佛敎信仰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義湘의 風水書의 내용과 그 眞僞를 차치하더라도 이 당시 義湘에게 山과 地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있었고 이러한 風水의 地理개념이 浮石寺를 비롯한 그의 創建寺刹에 분명히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浮石寺의 配置變化와 分析의 意義

1. 配置變化의 단계

浮石寺의 配置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헌에서 나타나는 殿閣들의 배치와 현대의 배치를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변화단계는 시대 구분이 필요하며 그 기준은 浮石寺의 重創이나 重建의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료에 근거해서 연대적으로 체

註 27) 金烈圭, Op, cit, pp. 234~237.

註 28) 閔泳珪, 韓國의 人間像, 1965, p. 92.

註 29) 梁銀容, Op, cit, pp. 279~281.

註 30) 朝鮮寺刹史料 Op, cit, p. 38.

註 31) 「楡岾寺事蹟記」 p. 45, 이 자료는 1297년 (고려충렬왕 23년)에 閔澣이 「楡岾寺事蹟記」에 인용한 <新羅古記>의 기록이다.

계화하고 이 자료를 기초로 단계별 건물의 위치를 파악하여 뚜렷한 변화의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浮石寺의 배치연혁에 관계되는 資料로서는 本寺刹에서 발견된 各殿閣들의 重修記, 重創記³²⁾와 1849年 기록으로 되어있는 「順興邑誌」(醉鄉誌) 그리고 19 중반 및 후반의 邑誌와 1960년대 기록인 「榮州誌」, 「興州誌」 등이 있다. 各 자료를 통하여 表를 구성해 보았을 때, 現存하는 浮石寺 관계 자료의 내용상 殿閣의 變化를 알 수 있는 것은 주로 無量壽殿과 祖師堂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殿閣들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朝鮮英祖22年의 「浮石寺 鍾閣重修記」와 새로운 자료라 생각되는 憲宗 15年의 「順興邑誌」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고, 近代의 배치내용은 1960년대에 기록된 「興州誌」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 이들 문헌을 토대로 살펴보면 시기별로 (표1)과 같이 분석사 주요변화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표1 浮石寺主要 配置變化 時期表

時 期	主要變化內容
1 創建(676)~ 高麗末(1376)	元의 침입후 圓應國師의 再建
2 ~朝鮮英祖(1746)	「梵鍾閣 重修記」 기록에 英祖 22年 大火災時, 安養樓~法鍾閣사이의 建物の 피해사항
3 ~朝鮮憲宗(1849)	「順興邑誌」 기록에 英祖 이후 새로운 배치구성에 관한내용
4 ~現在(1988)	1967年의 「興州誌」 배치형태와 1970~80당시의 보수공사, 그 이후의 공사로 현재에 이룸

2. 變化단계 分析

1) 創建~高麗末(676~1376)

浮石寺 創建時 建物の 수와 규모 및 명칭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기록으로는 無量壽殿과 祖師堂의 變化내용과 몇몇 기본적인 대지상태만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시기의 殿閣에 관한 기록으로 祖師堂의 창건시기와³³⁾ 無量壽殿의 火災에 관한사항³⁴⁾이 있는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高

麗末 공민왕 당시 元의 침입에 의해 무량수전이 불타면서 浮石寺 창건시 부터 유지되고 있던 배치체계가 이때 일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기록에는 무량수전의 피해사항만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당시 浮石寺를 이루고 있던 殿閣들중 상당수가 전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고려 禹王2年(1376)에 圓應國師에 의한 無量壽殿의 重修 기록을 통해 浮石寺의 면모가 크게 一新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朝鮮英祖(~1746)

이 시기의 주요내용으로는 1490年 祖師堂 重修, 1493年 祖師堂의 舟靑, 1573年 祖師堂의 更椽등 주로 祖師堂의 變化내용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후 임진왜란 기간인 1592~1599년 사이에 왜란으로 인하여 浮石寺가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無量壽殿에 대해서도 1612년에 中樑을 보수했다는 기록만이 전할 뿐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高麗 공민왕 당시 元에 의해 큰 피해를 입고난후 정비된 이래로 浮石寺의 주요 전각배치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朝鮮英祖 22年 (1746)에 火災로 인한 큰 변화가 浮石寺에 있었음을 볼 수 있다. <浮石寺 鍾閣 重修記>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上丙寅秋僧堂滿月堂西別室萬歲樓鐘閣俱火沙門三應第口意重修時山童歲飢無所取材面能奔走紀炊掃募工始役于丁卯二月」

위의 기록에는 연호가 없어 정확한 연대를 파악할 수가 없으나 安養樓에 걸려있는 英祖때의 重修 기록을 보면³⁵⁾ 英祖22年(1746年) 9월에 화재로 인하여 鍾閣과 함께 僧堂, 滿月堂, 西別室, 萬歲樓등이 사나운 불길속에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무량수전이나 조사당의 피해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록된 순서가 건물배치 순서라 할때 現在의 배치에 있어(圖1) 安養樓이하의 건물로 부터 鍾閣 즉 梵鍾閣까지의 中間部가 화재로 사라졌음을 볼 수 있다.

3) ~朝鮮憲宗(~1849)

朝鮮 英祖22年의 火災이후 거의 100여년이 지난

註 32) 浮石寺, 重修記, 「安養門 重修記」, 「浮石寺 安養門重創記 西寶殿舟樓重修記」, 「浮石寺鍾閣重修記」, 「無量壽殿佛像改金記 鳳凰山 浮石寺改築記」, 「祖師堂重修記」, 「祖師堂 長舌端巖書」, 「無量壽殿懸板裏書」.

註 33) 祖師堂 道理下端巖書, 祖師堂創建은 1201년이다.

註 34) 鳳凰山 浮石寺改椽記

註 35) 材木大施主 永春縣監俞彥鐸 聖上二十三年丙寅秋九月梵鍾閣與諸寮並入灰潰近界山童……

註 36) 順興邑誌 는 1977~80년 분석사 보수정화공사 당시 군청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중 <佛宇浮石寺條> 끝에 1849年 憲宗15年으로 기록되어 있어 기록연대를 그대로 보고 있다.

朝鮮 憲宗15年 (1849)에 기록된 「順興邑誌」³⁶⁾에는 당시 浮石寺의 배치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다. 「順興邑誌」 <佛宇浮石寺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순서대로 分類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核心部：金堂西有聚遠樓 石切如削高十餘丈 南望群山 皆在眠低 目力所及可囑 三百里樓北有藏香臺 金堂東有上僧當 金堂中廷有光明臺 其前有安養門
- 中間部：門前有法堂 堂左爲禪堂 石爲僧堂 前有敝鍾閣 亦寬敝閣下 又有五六堂室
- 進入部：有廻轉門 曹溪門 比前有太切高 四五丈 廷衣百餘步 麗襲巨石 疊累如削橫巨 作合全輪一寺於 其上鬼役天成亦一壯 視 又其下數十步許有一柱門 又其下一里許有影池 寺之樓閣 盡倒影於池面
- 庵子部：祖殿之西有靈山殿 又其西有 隱神庵 庵東有 巨石將立高 數丈上可十餘人 庵東西有臺 眠界之通敝圓閣爲一山之 最 其下門有極樂 祖殿之東 有東殿 殿後有國師碑 靈隱庵在浮石寺北鹿 一里許 內院庵 在浮石西山 西山金廢 夢見庵 在 浮石寺

여기서 金堂이란 無量壽殿을 가르키는 것이므로 주요 堂宇를 中心으로 살펴보면 무량수전과 安養樓 앞으로 禪堂과 僧堂이 있으며 그 앞으로 鍾閣 즉 현재의 梵鍾閣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앞의 英祖22年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안양루앞과 범종루사이의 堂宇들과 유사한 배치임을 볼 수 있다. 이는 英祖 당시의 화재이후 憲宗 15년에 와서 화재로 인한 건물의 배치가 英祖당시의 배치로 복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順興邑誌」의 주요내용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① 核心部

“金堂 西쪽에는 聚遠樓가 있으며 섬돌이 깎아지른 듯이 높아 十餘丈이나 된다. 西쪽으로는 여러산들이 눈아래에 내려다 보이는데 전개되는 지역은 3백리 정도 볼 수 있다. 淸원루 북쪽에 藏香臺, 金堂 東쪽으로 上僧堂, 金堂 중정에 光明臺, 그앞에는 安養門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주요 논점은 淸원루에 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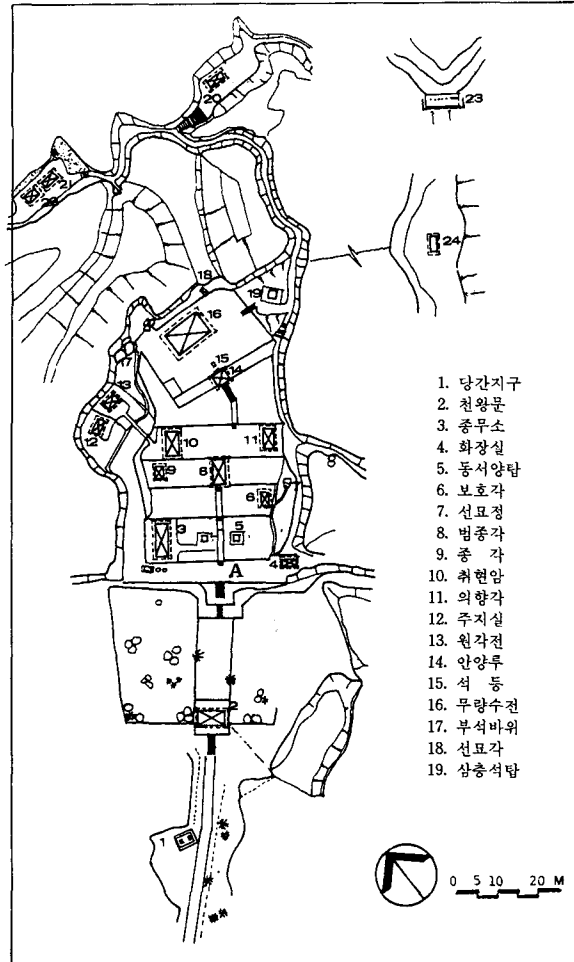


圖1. 現 浮石寺 配置圖

것인데 현재 浮石寺의 淸원루에 대한 위치의 논의가 상반되는 점에 있어 명확한 답을 주고 있다고 본다.³⁷⁾ 그 외에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上僧堂」과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藏香臺」가 무량수전 주변에 있었다고하며 金堂앞에 安養樓가 있다는 기록은 현재와 一致하고 있다. 現在 安養樓가 걸쳐있는 축대의 명칭이 「光明臺」라 불리웠음을 알 수 있다.

② 中間部

“安養樓 앞에 法堂이 있는데 왼쪽은 禪堂이고 오른쪽은 僧堂이다. 그 앞에 鍾閣이 있는데 넓게 탁트였고, 鍾閣아래로 또 五, 六개의 堂室이 있다.” 安養樓앞의 좌, 우 法堂은 현재의 醉玄庵과 凝香閣

註 37)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한다.

陳景敦, 浮石寺의 立地選定背景과 配置特性에 관한 研究, 한양대, 1988, pp. 88~89.

註 38) 文化財管理局, 榮州浮石寺 보수정화준공보고서 1980. p. 107.

자리(圖 1, ⑩⑪)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法堂앞에 鐘閣이 현재의 梵鐘閣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梵鐘閣 아래로 五, 六개의 堂室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의 浮石寺 건물 유구를 살펴보면 樓를 中心으로 한 좌, 우의 건물터가 발견되었고(圖2, ⑩⑫⑬⑭) 梵鐘閣 현재의 증무소와 보호각의 위치가 충분히 건물터로 보여 「順興邑誌」의 내용과 일치한 상황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進入部

“그 앞으로 回轉門과 曹溪門이 있는데 門앞에 높이 四~五丈이나 되는 큰 섬돌이 있어서 百여보나 뻗어 臺를 이루고 있는데 그 위에 절을 모두 싣고 있다... 또 그 아래로 수십보 되는 곳에는 一柱門이 있고, 또 그 아래로 一里쯤 되는 곳에는 影池가 있어 절의 樓閣이 池面에 거꾸로 비친다.” 이 부분이 「順興邑誌」의 내용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현재 배치가 당시의 배치형태와 상당히 틀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門의 구성과 명칭인데 기록순서로 보면 門의 구성이 回轉門→ 曹溪門→ 一柱門

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것이 山地寺刹의 三門형식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門의 위치에 있어서는 글의 구성으로 보았을 때 거의 당시와 변함이 없는 梵鐘閣아래와 가장 큰 석축이 있는 지역(圖1, A) 사이에 回轉門과 曹溪門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一柱門의 위치 역시 중요한데, 현재 浮石寺의 一柱門은 1978~1980年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며 그 자리가 과거 一柱門址였다는 어떠한 기록도 없다. 다행스럽게도, 1980年 浮石寺 보수정화공사시, 현재의 天王門자리(圖1, ②)에서 柱間 6.6M나 되는 2개의 초석을 발견하여 과거 이곳에 상당히 큰 門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는데³⁸⁾ 이것이 「順興邑誌」의 一柱門의 위치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 現 天王門자리가 과거 一柱門址였음을 알 수 있다. 曹溪門址는 進入時 제일 큰 석축이었다는 사실이 후에 밝혀졌으며³⁹⁾ 回轉門의 위치는 정확치는 않으나 기록 순서상 조계문보다 뒤에 있고 梵鐘樓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각 건물과의 적당한 거리와 門이 있기 위한 空地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現 東, 西兩塔이 있는 부근이 아닌가 생각된다(圖2, ⑮)

④ 庵子部

庵子에 대해서는 祖師堂 西쪽으로 靈山殿, 隱神庵과 祖師堂 東쪽으로 東殿, 그뒤로 國師碑와 極樂庵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浮石寺域을 벗어나서는 靈隱庵, 內院庵, 夢見庵이 있었음을 밝혀 주고 있다. 이중 國師碑를 제외하고는 現在 모두 소실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볼때 憲宗때 까지만 해도 억불의 朝鮮時代였지만 浮石寺의 규모가 상당히 컸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現在

1849年 이후 浮石寺는 계속 퇴락하게 되는데 朝鮮末期의 혼란기와 日帝時代를 걸쳐서 현격하게 축소되었다. 이 당시의 변화상태에 관한 기록으로는 1916年 무량수전을 해체보수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큰 변화의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다. 근세까지 만해도 稅華殿이라는 殿閣이 무량수전 西편 축대 아래로 있었다고 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기록으로는 1968년에 기록된 「榮州誌」⁴⁰⁾와 「浮石寺事蹟」⁴¹⁾을 통해 그 위치가 무량수전 西쪽 現在의 圓覺殿 앞부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현재까지 전각이 계속 증축되어 왔는데 196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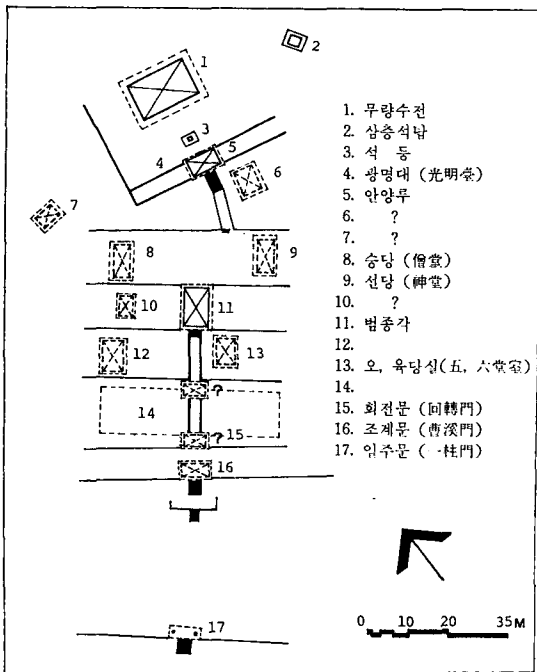


圖2. 浮石寺의 유구 및 「順興邑誌」의 配置

註 39) 文化財管理局, Op. cit. pp. 104~107.

註 40) 榮州郡誌편찬위원회, 榮州誌, 1968, p. 67.

註 41) 金進英, 浮石寺史蹟

기록인 「興州誌」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興州誌」의 <浮石寺 風水到> (圖3)을 보면 당시 浮石寺의 中心軸이 無量壽殿→安養門→梵鍾樓임을 알 수 있고, 이 당시의 전각으로 祖師堂, 三聖閣, 醉玄庵, 凝香閣과 당간지주를 비롯한 同書兩塔, 三層石塔, 석등 등의 石造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興州誌」에서 보이는 이러한 배치상태에 그후 몇棟의 건물이 증축되는데 1977~1980年 사이에 증무소와 天王門, 一柱門이 증축되었고 1980年 이후 梵鍾樓 옆의 鐘閣과 보호각이 새로이 증축되었다. (圖4)

以上的 浮石寺 配置變化단계를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그 주요특징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全體의인 배치변화에 있어서 創建당시의 배치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高麗 恭愍王 이후 圓應國師의 重創이후의 배치가 「順興邑誌」의 배치와 관련이 있는 형태였다.

둘째, 「順興邑誌」와 英祖22年の 기록을 비교해 본 결과 英祖당시의 대화재이후 憲宗 15年の 배치 형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면 「順興邑誌」의 배치와 현재의 배치상태를 비교해보면 무량수전을 비롯한

安養樓, 梵鍾閣등 주요건물과 9개의 石築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중요한 사실로, 進入部의 門의 위치와 그 數는 현재와 상당히 다른 三門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이들 門의 위치는 현재의 門의 위치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들 門의 建立年代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문헌들의 관계를 볼때 최소한 英祖 22年(1746)以前에 構成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順興邑誌」의 배치상태는 浮石寺 배치원형에 더욱 근접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셋째, 浮石寺의 규모는 현재에 와서 상당히 축소된 것이며, 현재의 配置는 주로 1967~1983年 사이에 조성된 것이었다.

3. 進入部의 空間分析

지금까지 浮石寺의 配置變化와 주요特徵을 살펴 보면서 分析의 결과 나타난 몇가지 점을 토대로 현재 浮石寺의 殿閣을 空間的 측면에서 비교, 정리해 보고자 한다. 「順興邑誌」에서 分析한 것처럼 浮石寺 域의 殿閣構成을 세 부분 즉, 進入空間, 中心空間 核心空間으로 나누어 보면 특히 進入空間에서의 殿閣構成이 現在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進入空間의 전각으로는 一柱門, 曹溪門, 回轉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밝혀진 門의 위치를 현재의 寺域에 배치했을때 <圖5>와 같이 구성될 수 있었다. 이들 각 장면은 石築을 전, 후로 하여 각 門에 진입하기 前과 門을 통과하고 나온 後의 장면을 구성한 것인데 이들 규모에 관해서는 浮石寺 보수정화준공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참조하였다.⁴²⁾

浮石寺 入口에서부터 山地를 따라 오르면 왼편으로 당간지주가 보이면서 현재의 天王門(A')에 이르게 되는데 「順興邑誌」의 기록당시에는 一柱門과 曹溪門이 함께 시야에 들어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 여기서 부터 비로소 浮石寺의 영역임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계단을 오르면 曹溪門과 함께 큰 石築으로 인하여 앞의 殿閣들의 내용을 알수 없는 상태에서 조계문 뒤로 건물이 있음을 알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B.C).

이러한 구성은 잠시 사라졌다가 曹溪門으로 오르는 계단下에서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계단을 오르



圖3. 「興州誌」의 浮石寺 配置圖

註 42) 文化財管理局, Op, cit pp. 104~107.

과거 一柱門이 있던 현재의 天王門址에서 발견된 礎石을 보면 그 柱門이 6.6M(22尺)로써 다소 큰 절이 있으나 大寺刹이란 점에서 그 柱間에 따랐으며, 曹溪門의 경우 일반적인 형식인 전면 3間, 측면 2間の 맞배지붕에 2익공의 구조로하였고, 回轉門에 있어서는 현재 春城郡의 淸平寺 回轉門을 참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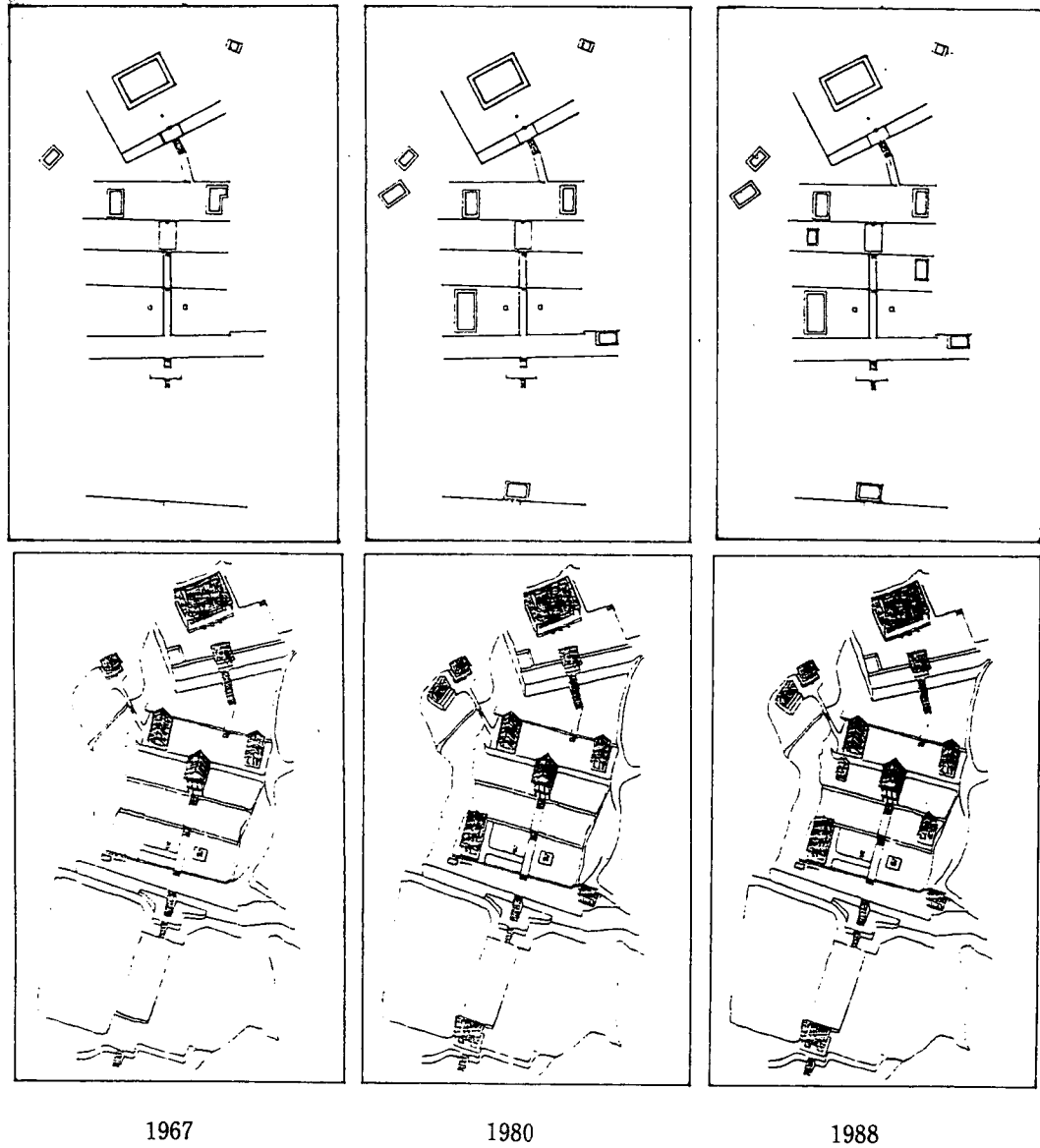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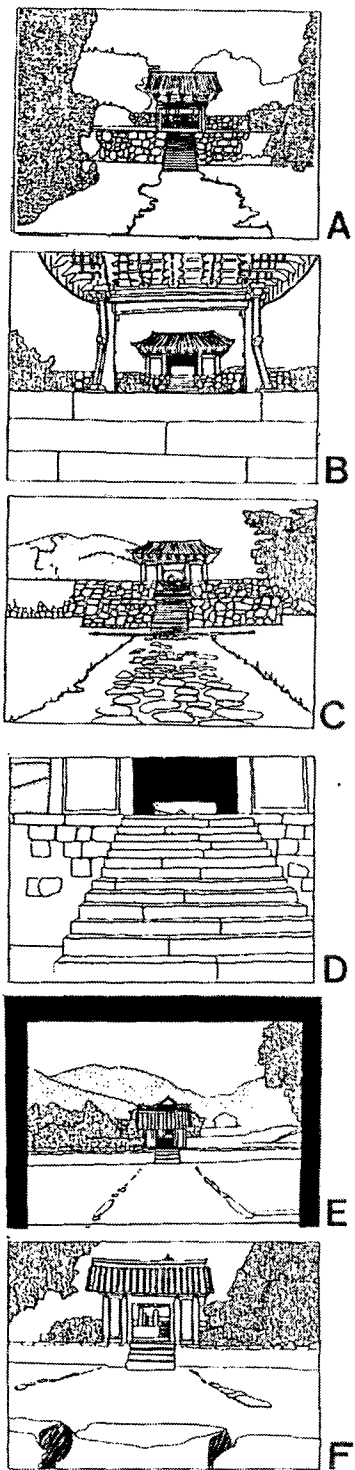


圖4. 1967~1988 浮石寺配置變化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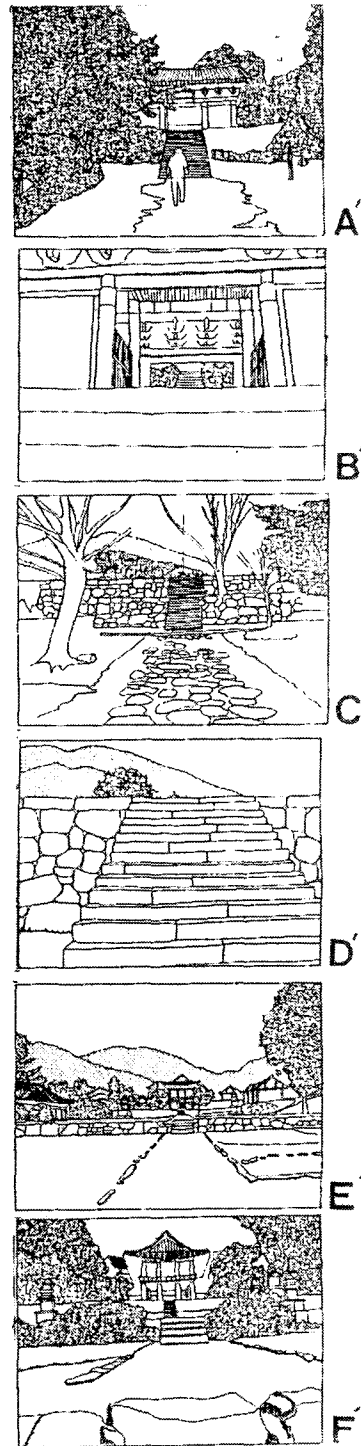
면서 점차 寺刹의 全貌를 知覺하게되고 曹溪門 안에서 보면 回轉門의 모습과 함께 回轉門의 지붕위로 앞에서 보았던 梵鐘樓의 지붕선이 같은 크기로 다시 나타나는 특이한 모습을 보게된다. (D, E). 이러한 모습은 回轉門으로 다가서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며 梵鐘閣으로 오르는 계단이 보이면서 中間지역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場面을 취하고 있다.(F). 이들 進入部를 현재와 비교해 보면(D'E') 비교적 안정되고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中心軸을 강조하여 視線을 흐트리지 않고 주요건물을 향하게

하는 구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進入部에서 특이한 점은 몇개의 큰 석축과 門으로 인해 앞의 전개에 대한 암시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인데 이러한 전개의 의문은 曹溪門을 오르면서 풀리게 되고 석축에 의하여 寺刹의 규모를 알 수 없었던 것이 조계문을 지나면서 서서히 知覺되어 석축과 門이 進入空間의 場面構成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回轉門을 지난 梵鐘閣 이후 부터는, 現在와 유사한데 浮石寺의 空間構成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場



1849年 進入部



現在の 進入部

圖5. 1849년과 現在の 進入空間 比較圖

面을 경험케하는 梵鐘閣의 樓下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視覺의 變化(圖6)와 安養門을 지나 無量壽殿에 이르는 다양한 場面構成(圖7)은 당시에도 거의 같은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당시 浮石寺 建築空間이 갖는 特徵을 정리하면 다음 두가지로 要約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進入時 石築과 門을 통하여 場面展開에 대한 암시적 역할과 다양한 視覺的 變化를 느낄 수 있다는 점과 둘째, 梵鐘閣의 軸과 無量壽殿의 軸의 變化에 의한 視覺的 高려고 主建物인 安養樓와 無量壽殿을 透視圖의으로 보이게 하는 構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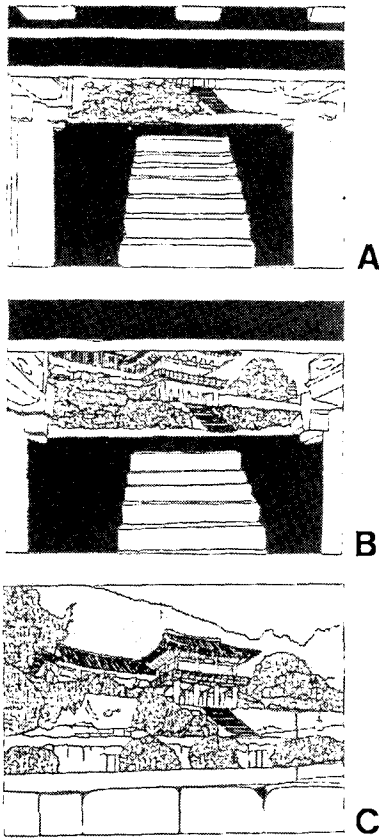


圖6 中間部 主要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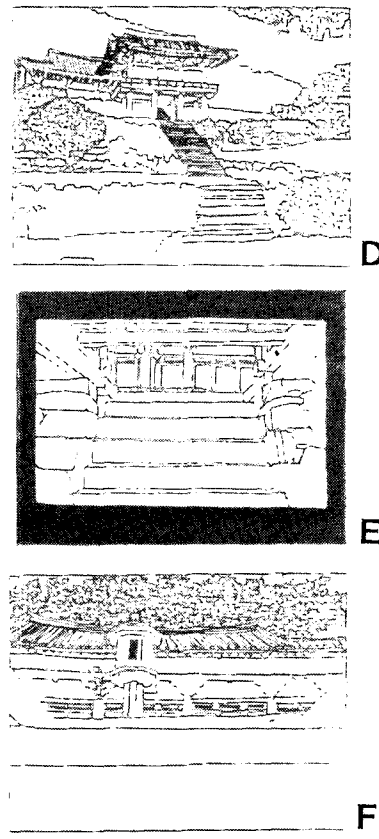


圖7 核心部 主要場面

V. 結 論

本稿의 研究結果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浮石寺의 立地選定背景을 論한 결과 당시 佛敎의 民間信仰 습합단계중 구체적인 귀합의 단계에 創建된 浮石寺는 新羅의 傳統的 信仰터인 道敎의 仙風·聖地에 立地하고 있었으며 이는 佛敎가 民間信仰의 神聖개념을 대신하고자 했던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風水的 요인은 당시의 立地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증거로 義湘의 風水書라 하는

「靑丘秘訣」의 기록내용과 浮石寺 創建당시 義湘의 行적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浮石寺에 반영된 이와같은 요인들은 後에 창건되는 新羅의 山地寺刹 立地에도 유사한 형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浮石寺의 配置變化分析을 통하여 現在의 浮石寺 配羅原型에 접근하려고 한 결과 각각 시대별로 4단계의 變化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새로운 문헌이었던 1849年作 「順興邑誌」의 內容分析을 통하여 없어진 건물의 位置와 門의 위치가 확인되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浮石寺에도 山地寺刹의 일반형태인 三門形式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門의 명칭은 一柱門→曹溪門→回轉門이었다.

○이들 門의 위치는 현재의 것과 상당히 다른 것이었는데 一柱門은 현재 天王門의 자리였고, 曹溪門은 進入時 가장 큰 석축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으며 回轉門의 위치는 정확한 유구가 없어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 殿閣의 구성상 現 東·西 양탑이 있는 곳으로 파악되었다.

○梵鍾閣 아래로 있었다는 五, 六堂室은 정확히 어떠한 殿閣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었으나 현재의 유구를 통하여 일련의 건물들이 이곳에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庵子의 數와 殿閣의 배치상황을 통해 볼 때 현 浮石寺 寺域은 그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상태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3. 이러한 당시 浮石寺의 배치상황을 토대로 空間的 側面에서 再構成하여 分析해 본 결과 두가지의 독특한 공간특성을 얻을 수 있었는데, 즉

○ 당시 浮石寺의 進入空間에 있어 石築 및 門의 構成과 軸의 변화에 의하여 進入時 다양한 視覺

的 展開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과

○ 中間 및 核心部에 있어 梵鍾閣 樓下에서의 視覺的 효과를 고려하여 中心건물인 無量壽殿과 安養樓를 강조하려는 透視圖的 空間構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浮石寺 重昌記, 重修記
- 浮石寺 事蹟
- 順興邑誌 (醉香誌)
- 榮州誌
- 興州誌
- 朝鮮寺刹史料(下)
- 韓國佛敎研究院, 韓國의 寺刹(9)
- 李能和, 朝鮮道敎史
- 韓國道敎思想研究會, 道敎와 韓國思想
- 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 柳東植, 民俗宗敎와 韓國文化
- 文化財管理局, 榮州 浮石寺 보수정화준공보고서